
2022년 제1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3. 25. ~ 3. 3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3. 25.	시청률	0.000

【총 평】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착한 가게'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되고 있는 국내 첫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비난하고 나선 '대학가 우크라이나 돕기 모금 운동 확산', 4월 시행을 앞둔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위반 과태료', 80년대 골목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화 마을 관광객 줄이어', 또 최근 시범경기를 시작한 '프로야구'와 '봄의 전령사, 산수유 활짝'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일하고 경험 쌓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착한 가게'
굿월스토어 밀알 송파점에는 54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기증품 접수와 수거, 분류, 영업 등을 통해 소매 유통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을 쌓고 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습교육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 누구나 평등하게, 국내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접근성 격차를 줄여주는 무인단말기는 정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표준화 사업으로 개발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세종병원, 수원시 선별진료소 전국 4곳에 시범 설치돼 있다.
- 대학가 '우크라이나 돕기' 모금 운동 확산
서울의 4개 대학 학생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SNS를 통한 모금 운동에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와 학교 주변 상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 4월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위반 '과태료'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의무화했다. 목줄을 하지 않거나 길이 제한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관할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려견 보호자들이 스스로 목줄 의무화 규정을 지키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중요하다
- 추억과 향수의 '시화마을' 관광객 줄이어
목포 유달산 자락에 다닥다닥 집이 들어선 서산동 시화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7, 80년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던 추억의 물건을 비롯해 유리로 만든 구슬, 프로야구 선수 얼굴이 새겨진 종이 딱지와 인형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 '프로야구 40년' 코로나19 딛고 새로운 도약
1982년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로 마흔돌이 됐다.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구단 수는 1986년에 7개, 1991년에 8개, 2013년부터는 10개 구단으로 늘어났고 선수층도 두꺼워졌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야구계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3. 26.	시청률	0.000

【총 평】

‘글로벌을 향한 K-AI’와 ‘외국인 효도 관광코스’에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AI 기술을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K-팝스타’ 샤이니의 민호를 모델로 만든 "광화시대 - 광화인" AI 민호의 등장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생생 K컬처’에서는 AI작곡가 ‘이봄’의 탄생과 능력 및 해외 반응 등을 들려주었고, AI작곡 시연을 보여주었다. ‘180만 유튜버 데이브 V로그’는 외국인 부모님을 위한 효도 관광 코스로 인사동의 꿀타래 먹방과 전통 찻집을 방문했다.

【구성 및 내용】

‘생생 K컬처’에서는 김현식씨와 SG워너비의 이석훈씨가 합동 공연으로 ‘너의 뒤에서’를 불렀다. 고 김현식씨의 목소리는 AI 음성복원을 통해 노래를 살려냈다. 또 AI 기술로 백범 선생님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미국의 앰퍼 뮤직과 프랑스 아이바와 함께 세계 3대 AI 작곡가로 꼽히는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EVOM)의 작곡 시연을 통해 AI 작곡이 음악 분야에도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인간과 AI가 만들어 내는 작곡 세계를 비교해 살필 수 있었다는 점이 신선했다. 다른 AI와는 달리 나이를 먹는다는 ‘이봄’은 올해 데뷔 6년차로 23살이다. 3분짜리 곡을 5초 이내에 작곡을 하고 악보로 그리기까지 불과 15초 밖에 걸리는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소녀시대 태연의 동생 가수 ‘하연’이 ‘이봄’의 곡으로 데뷔해 화제가 되었다. AI ‘이봄’은 클래식을 기본으로 K-pop 뿐만 아니라 재즈, 힙합 EDM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제5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 행사’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와 협업을 통해서 추모 공연을 선보였다. 앞으로는 AI ‘이봄’을 통해서 국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AI ‘이봄’의 공개 후 해외에서는 함께 협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I는 다양한 멜로디와 모티브를 프로듀서에게 제공해 작곡을 돕는데, AI는 곡의 구조와 코드 진행 방법 등을 조합해 많은 멜로디를 생성하고 있다. AI ‘이봄’의 가장 큰 매력은 창작의 고통이 없다는 점이다. 또 표절 가능성이 매우 낮고 누구나 자신의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80만 유튜버 데이브 V로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는 빅토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이브는 서울의 인사동을 방문해 기념품들을 살펴보았다. 하회탈을 비롯해 복주머니, 미니 병풍 등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인사동 특산물 ‘꿀타래’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시식을 통해서 맛을 전달했고,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한 찻집을 찾아가 쌍화차와 국화차 그리고 다과를 맛보았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3. 26.	시청률	0.013

【총 평】

‘지구를 걷는 56세 도보여행가 도경씨’편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를 걸기로 극복하고 심신 회복을 통해 걸기 전도사로 활기찬 귀촌 생활을 즐기고 있는 50대 여성의 삶을 소개했다. 특히 귀촌의 동기, 왜 걷는가, 걷기의 좋은 점, 함께 걷는 즐거움, 국토종주 도보를 기부행위로 연결하는 소망 등을 이끌어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걸기에 주저함 없이 도전의 첫 발을 뗄 것을 권하는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나홀로 걸기를 통해 얻게 된 일상의 행복감을 담아내 50대 소확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50대 미혼여성의 전국 무대 국토종주, 사고 후유증을 걸기로 극복, 저서 준비와 기부 여행 준비 등 이색적인 소재와 스토리가 관심을 유발했다.

【구성 및 내용】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는 큰 규모의 한옥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귀촌 1년차 김도경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커피를 마신다. 지난해 7월 아무 연고도 없는 산청으로 내려온 주인공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주인공은 정기적으로 지리산을 찾아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이번에는 언니와 함께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트레킹하며 계곡 물도 맛보고 대화도 나누었다.

주변의 걱정을 뒤로 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딴 시골에서 도경씨는 귀촌 생활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보다 일과 취미생활을 더 즐겨 산악자전거, 스쿠버다이빙, 승마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겼고,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를 겪었다. 앞으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활을 하며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걷는 즐거움에 빠졌다. 걸어야 산다는 의사의 말에 그 때부터 무작정 걸기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과 지리산을 걸으며 자연에 감탄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 주인공은 귀촌 이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특히 2018년에는 동해안 국토종주를 하고 이듬해에는 서해안 국토종주를 완주한 내용은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길 위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생각들을 책으로 펴낼 생각이다. 걸어서 만나는 세상이 그 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많이 다름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정기적으로 시흥을 방문해 작가에게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다. 매화가 꽃망울을 맺으면 광양과 하동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볼 예정이다.

‘지구를 걷는 56세 도보여행가 도경씨’는 제목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 것이 흠이었다. ‘지구를 걷는다’는 표현은 자칫 히말라야나 후지산 등 해외 도보여행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목은 ‘국토종주에 나선 50대 도보여행가’ 또는 ‘걸어서 전국 탐방, 이색 여행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또한 제작방법을 고려했을 때 도입부 1분 이후와 15분 54초 이후에 중복된 영상과 내용도 아쉬움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3. 27.	시청률	0.006

【총 평】

‘친북’에서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횡보와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정권 교체기 의례적인 모습이라는 점과 북미 대치 국면 회귀 가능성 등 차분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소개했다. 또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군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슈텔링’은 봄을 맞아 북한의 꽃구경 명소와 봄꽃 풍경을 보여주어 시선을 끌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봄꽃이 일제 잔재처럼 여겨지는 벚꽃이 아니라 살구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이 지난 1월에 미사일 발사를 했고, 3월 20일에 방사포를 발사했다. ICBM 관련 발사는 3차례 있었고, 3월 16일 발사는 폭발로 실패했다. 앞의 10차례 미사일과 달리 방사포를 4발 발사한 것이다. 20일의 방사포는 화성-17형을 시험한 것이다.

조선 시대의 신기전이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 방사포이다. 북한에서는 방사포, 우리는 다연장로켓포로 부른다. 북한 방사포에 대응한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전술지대자유도탄(KTSSM), 북한 장사정포정밀타격용 무기가 있고, LAMD 북한 대구경방사포대응 무기 또한 개발 중이다. 10년 이내에는 크기가 작아 요격이 어려운 방사포도 막아내는 무기가 개발돼 수도권 방어에 철저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우리군은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이후 해상완충구역은 북한의 초도 이남과 남측의 덕적도 이북인 135km 구간이다. 북한의 발사 사정거리는 이에 접근하지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북한 방사포 사격은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고 2019년 2차 북미정상 회담 이후 북한이 국방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형 무기 실험발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신형 무기 실험발사도 북한의 국방력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로 복잡한 국제 정세와 미중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슈텔링’은 우리와 닮은 듯 다른 평양의 봄 풍경에 대해서 소개했다. 북한의 꽃구경 명소는 북한 평양의 모란봉과 대동강 유보이다. 모란봉이 야유회 명소로 꼽힌다면 대동강 유보도는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이다. 이곳에 벚꽃이 아닌 살구꽃이 피어있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벚꽃을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해 모두 살구꽃으로 대체했다. 북한은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한다. 고위층 자녀만 김밥, 층층의 곽밥을 싸오고, 일반인들은 비지, 보리, 밀, 된장,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3. 27.	시청률	0.110

【총 평】

아이돌 '킹덤'의 세계관과 4세대 아이돌 유망주 '킹덤'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에 팝 댄스를 접목한 가요와 춤으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는 '킹덤'의 세계관과 새로운 꿈, 도전, 열정, 의지를 통해 한류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살려 열정으로 꿈에 도전한 20대 예능인들의 애환을 꾸밈없이 드러낸 구성이 청년층에게 공감도를 높이고 성취동기를 부여한 점이 돋보였다. 이 밖에 데뷔 1년 경력의 아이돌로서의 애로사항, 뮤직비디오 제작과정의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목표, 즉석 댄스 이벤트 등을 통해 흡인력을 높였다. 끈대다방 사장인 김용림 진행자는 후배 연기자인 킹덤에게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지에 대한 연기지도로 즉석에서 눈물 연기를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구성 및 내용】

킹덤(자한, 아이반, 아서, 치우, 단, 루이, 무진)은 2021년 2월 18일 타이틀 곡인 엑스칼리버로 데뷔한 7인조 그룹이다. 추운 겨울 찬물 속에 몸을 담그고, 야외에서 한복을 입고 추위에 떨며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도 꿈과 열정으로 이겨냈다. 킹덤의 멤버 자한은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으나 오디션에 한번에 합격함을 계기로 허락을 받아냈고 단은 어렸을 때 두바이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다가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킹덤만의 세계, 춤출 때의 행복감 등 20대들의 솔직하고 생기발랄한 토크와 각종 댄스 동작 보여주기가 프로그램의 활기를 더했고, 전주사람은 전주 비빔밥을 먹지 않는다, 두바이는 정류장에서 에어컨 나온다, 한국에 오니 주변사람이 모두 한국이다 등 예능감 있는 이야기가 흡인력을 높였다.

아이돌 그룹 킹덤은 데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 아이돌로 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K-팝으로 재해석하는 7인조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서의 '단'과 인도황제인 샤 자한이라는 이름을 모티브로 '자한'이라는 예명을 만들어 그룹의 인원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소개했다. '단'은 변화의 왕국 이라는 뜻이며, '자한'은 태양의 왕국 이라는 뜻이다.

킹덤이 이번에 4번째 앨범을 발표하는데, '변화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 싸우는 왕, 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단의 굳은 심지와 킹덤 특유의 음악적 색깔을 앨범 전체에 녹여냈다. 킹덤은 각 앨범마다 각자 예명의 이름의 특색을 나타내는 독특한 그룹으로, 이번 앨범의 주제가 '단'을 주제로 한 한국의 전통음악과 K팝을 아우르는 국악 에픽 댄스 팝 장르라고 소개했다. 3월 31일 타이틀곡 승천이라는 곡으로 컴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승천이라는 곡의 주인공은 단의 이야기이다. 특히 킹덤의 구슬프면서 한이 서린 음색에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 해금과 대금, 가야금 등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3. 27.	시청률	0.005

【총 평】

‘공공데이터로 만드는 축산의 미래’편은 축산농가의 감소,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 사육 문제점 등 축산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축산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고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축산데이터 분석 기업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축산도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육 방식부터 축산거래까지 공공데이터로 처리해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이 곧 나의 뉴딜’임을 일깨워 주었다. 축산물 이력제 활용 맞춤 컨설팅, 소고기 등급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해결방안을 제공했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방법 안내와 과기부의 데이터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확대를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축산농가를 도와주며 축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축산데이터 분석기업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축산업과 공공데이터의 관계부터 회사 경영, 축산 관련 연구를 한 이유, 소규모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 축산물 이력제와 등급평가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축산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성공적인 한우사육 노하우를 전달하고 최근 축산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주범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호소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축산데이터분석 스타트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축산업 경우 미국의 물류 문제로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량 문제는 다른 어떤 수출입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식량 주권과 관련하여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소고기에 대한 모든 이력과 품질은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생산자 이력, 백신 접종 여부, 등급 등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로 구축되어 있고 이런 공공데이터는 소비자로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정보, 축산농가로서는 소 관리를 위한 정보로서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체 축산농가를 유형화하여 동일한 환경에서도 생산되는 등급은 달라지는 것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슷한 축산환경임에도 좋은 등급의 소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게 노하우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 이력제과 등급평가제 관련 소고기 포장에는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고 일련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고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태어난 곳에서 부터 도축된 곳 엄마 아빠 소가 누구 인지 까지 추적할 수 있다. 등급평가 중 소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블링이다. 마블링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중요한 등급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축산기술이 녹아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3. 27.	시청률	0.006

【총 평】

‘2022년 화합과 통합, 앞으로의 과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당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하는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근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국내 경제 문제와 청년 취업 문제 등 서민의 생활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담았고, 대북 정책을 비롯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이 밖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과 의식을 성별, 세대별로 조사하여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으며 늘 국민 편에 서겠다.”며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구성 및 내용】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점과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기획이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모두에 배치해 국민이 바라는 점은 ‘포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구성이 무게감 있었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진영으로 나뉜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국민통합으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만큼 국민통합이 심각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관심사항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민 통합이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향상과 관련해 새 정권은 앞으로 경제성장을 시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맞춰지게 될 전망이라며,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방식과 경쟁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둘 것’ 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그에 상응해서 한국과 미국도 상응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많은 난제와 현안들이 있지만 당선인이 공언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2. 3. 31.	시청률	0.185

【총 평】

‘대면진료 확대’ 변화하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에서는 코로나19의 전반적 현황과 더불어 30일부터 달라진 확진자 병원 대면진료 방법 그리고 4월1일 발표를 앞둔 거리두기 조정안 전망, 4차 접종까지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PICK&PICK’에서는 ‘20년간 계속돼 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아동학대’ 양형 대폭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전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관련 우리사회의 이동 수단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위를 하는 것이 비문명국가가 아니라 장애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비문명사회”라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했다. “ICBM 발사 등 북한의 움직임 속...향후 한반도 정세”에서는 북한의 최근 동향과 대외 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폭 넓게 정리했다.

【구성 및 내용】

김부겸 부총리의 ‘전쟁 중에는 내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인용해 해외에서 호평 받는 K-방역이 국내 언론의 지나친 폄하와 정부에서는 대면 진료 확대와 고령층 대상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PICK&PICK’에서는 장애인이 버스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단 버스’라는 내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설명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는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3조가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서 정부는 정책 마련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최소한의 정책마저 지켜지지 않은 채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연대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살해죄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아동학대 양형 대폭 강화를 짚어주었다.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는 감형 요소를 배제해 중형에 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목표인 이 법 개정은 아동폭력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동을 잘 보살피며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北 ICBM 발사와 유엔 제재 실패’에서는 지난 24일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우리 군의 확인으로는 ‘화성 15형’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의 관심이 그곳으로 집중되자 북한은 군을 재정비하고 핵 능력을 향상시켜 북미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의도이다. 현재 풍계리 핵 실험장 시설 복구의 움직임마저 포착되는 상황으로 북미 대화 단절은 물론 세계적인 고립이 예상되고 있다.